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중국, 한국국채 매입 확대 경계론 비판

- 중국 언론은 올해 상반기 중국의 한국국채 매입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자 한국 내에서 중국이 악의적으로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는 이른바 ‘중국 경계론’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함.
 -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최근 올해 상반기 중국의 한국국채 보유액이 작년대비 2배가 증가한 34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자 한국 내에서 ‘중국 경계론’이 일고 있다고 보도함.
 - 이 신문은 중국의 한국국채 순매수세가 궁극적으로 위안화의 글로벌 기축통화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일부 한국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중국이 악의적으로 한국국채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 주장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함.
-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한국국채 매수 확대가 악의적 의도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비판하고, 오히려 한국국채의 낮은 유동성과 환급성을 고려할 때 중국의 한국국채 매입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.
 - 중국의 한국국채 매입에 대한 한국 내 우려에 대해 쑨리지옌(孫立堅) 푸단대학 경제대학원 부원장은 악의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함.
 - 그는 미국국채에 비해 한국국채는 유동성이 낮아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이 국채매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주장함.
 - 허마오춘(何茂春) 칭화대학 교수 역시 일본 내에서도 중국의 일본국채 순매수 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, 자본시장에서 상품성을 지닌 채권을 구매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아무도 구입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하는 등 중국의 국채매입 확대에 대한 경계론을 비판함.

(환구시보, 10/4)